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 5:6-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6-10

It's a great delight to be here.

이 자리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I just noticed I started preaching here as your pastor in May and I'm around the half year mark.

저는 지난 5 월 여러분의 목사로서 설교를 시작했고 이제 반 년 가량 지났습니다.

So I'm surprised to have already preached to you for about 6 months now -- time has flown. To be honest with you, one of my favorite things about being here in Seoul is preaching on Sundays.

제가 설교한지 벌써 6 개월째 되었다니 놀랍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솔직히 서울에서 지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주일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It is such a great delight to bring the Gospel to the Saemunan English Ministry (SEM) family here at church.

새문안영어예배(SEM) 가족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So I'd like to start off with a question:

How many of you like watching suspense thrillers?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나요?

Well one of my favorite suspense thrillers is the

2003 psychological thriller "Identity."

제가 좋아하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중 하나는

2003 년 나온 심리 스릴러 "아이덴티티(Identity)"입니다.

How many of you have seen this movie?

여러분 중 몇 분이 이 영화를 보셨나요?

In this movie, there are 10 characters that end up at a  
motel because of a sudden thunderstorm.

이 영화에는 갑작스런 폭풍으로 한 모텔에 묵게 된  
10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one by one the characters  
in the story are murdered.

간략히 말하면, 이야기 속 캐릭터들은 한 명씩 살해  
당합니다.

Everyone is trying to figure out who the murderer is,  
but they all fail.

모든 사람이 살인자를 찾아내려고 애쓰지만, 다  
실패합니다.

The first to be murdered is Caroline Suzanne.

첫번째 피살자는 캐롤라인 수잔입니다.

She is a 80s Hollywood TV actress – rich, vain, spoiled.

그녀는 80년대 헐리우드 TV 여배우로 부유하고 허영심이 강하고 버릇없는 사람입니다.

Robert Maine, an infamous criminal, is naturally accused of the murder.

악명 높은 범죄자인 로버트 메인 이 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But because he gets murdered next, the other characters realize that Robert is not the true killer. 하지만 그가 다음 희생자로 피살되자 다른 사람들은 로버트는 살인범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The next to die is Lou who is newlywed to Ginny.

그 다음에 루가 피살되는데, 그는 지니와 갓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Ginny is into superstition and strange spiritualism.

지니는 미신과 이상한 심령술에 빠져있습니다.

Because she is insecure, and the jealous type, she lies to Lou about her pregnancy to secure him in marriage.

불안하고 질투심이 많은 지니는 남편 루가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합니다.

The reason she is so insecure is because Lou has a cheating, wavering heart.

지니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루가 바람을 피우고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We know this because Lou keeps looking at another character with lust.

루가 다른 인물을 정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nd that character is Paris Nevada.

루가 바라보는 대상은 패리스 네바다입니다.

She is a former Las Vegas prostitute who steals money from her clients.

그녀는 예전에 라스베가스 출신 창녀로 고객의 돈을 훔치곤 했습니다.

Another suspicious character is Larry Washington.

또 다른 수상한 인물은 래리 워싱턴입니다.

He is the motel manager, but he is actually not the true manager.

그는 모텔 관리인이라 했지만 사실은 진짜 관리인이 아닙니다.

The movie reveals that the true motel manager had actually died.

영화에서는 진짜 관리인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His death occurred right before Larry Washington was about to check into the motel.

이 관리인은 래리 워싱턴이 모텔에 체크인하려고 할 때 죽었습니다.

He noticed the manager had died but instead of reporting the death, he hid the body and took over the motel.

래리는 관리인이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 신고를 하는 대신, 시신을 감추고 모텔을 차지했습니다.

Next we have Samuel Rhodes.

다음 인물은 새뮤얼 로즈입니다.

He appears to be a good guy but he is actually an escaped convict masquerading as a police officer.

그는 선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탈옥범이며 경찰관인 척 행세합니다.

The most innocent character is Timmy.

가장 결백한 인물은 티미입니다.

Throughout the movie, we feel sorry for Timmy because he is always frightened and Timmy's mother and father die in the movie.

영화 내내 우리는 티미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는 늘 두려움에 떠는 데다 그의 부모가 죽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Later, we find out, however, that among the characters, Timmy is actually the true killer and he successfully murders all the characters.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여러 인물 가운데 티미가 사실상 살인범으로 모든 등장인물을 살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In this movie, we see the sinfulness of all 10 characters. 우리는 이 영화 속 10 명의 인물에 나타난 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ome of them lie, some of them steal, some of them lust, and some even murder.

어떤 인물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정욕을 품고 또 어떤 인물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In many ways, the 10 characters in our movie is a reflection of our sinfulness.

여러 면에서 영화 속 10 명의 인물은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God gave us the 10 commandments to expose our sinfulness.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I won't go through all 10 commandments today, but I want to remind ourselves again.

오늘 이 십계명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You and I -- we are all -- according to God's standards, liars, thieves and adulterers, murderers, etc, etc. -- violators of all 10 commandments.

여러분과 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거짓말쟁이, 도둑, 간음자, 살인자이고 범죄자이며, 십계명을 모두 위반한 자들입니다.

In our responsive reading today, we read 1 John 3:14,15

In it we see ...

오늘 교독문으로 요한일서 3:14,15 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음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God's Standard of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

The 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Everyone who hates ... is a **murderer**,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인자**이다.

...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1 John 3:14,15

...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요한일서 3:14,15 절

Jesus say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ark 12:31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31

Jesus also says,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ur Neighbor Includes Not Only Our Friends But Our Enemies**

우리의 이웃에는 친구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 포함된다.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 Matt 5:44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44

So according to God's standard, you are supposed to love everyone, including your enemies.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And if you hate anyone, you are a murderer.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If God were to judge you by His standard of love, would you be deemed a lover or a hater? A lover or a murderer?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을 심판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입니까, 미워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살인자인가?

If we are honest, we are guilty – guilty of hatred – because right now,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 곧 미워한 죄가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지금, we all have people we hate. 우리는 모두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Some of us have a long list of people in our minds right now: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지금 생각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목록이 길게 이어질 겁니다.

People you can't stand, people you are angry at, people you are bitter towards, and frankly,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사람, 화나게 하는 사람, 원한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we wish these people did not exist.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Now let me ask you a serious question,

With that kind of hatred,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한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could God permit us into his Kingdom of perfect peace,  
perfect kindness, and perfect love?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완전한 평안, 인자함, 사랑이 있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까요?

A kingdom of perfect love for your neighbors?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완전한 사랑이 있는 나라에.

And perfect love even for your enemies?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위한 완전한 사랑이 있는  
나라에.

Could God permit hatred into a Kingdom like this?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 안에 미움이 들어가게  
허용하실까요?

Of course not!

결단코 아닙니다!

If we were to enter God's kingdom with that kind of  
hatred,

만일 우리가 그러한 미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it would no longer be heaven – it would no longer be a  
place of everyone loving each other as they love  
themselves.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 그곳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Remember,

In heaven, there are no murderers, there is no hate, there's only perfect love – sacrificial, unconditional, unselfish love. And ONLY that kind of love makes heaven, heaven.

기억하십시오,

천국에는 살인자가 없고 미움이 없고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있습니다. -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이기심 없는 사랑.

그리고 오직 그러한 사랑만이 천국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Heaven -- you see -- is where God abides, and God is holy, set apart from sin, and so God has the highest standards for Heaven.

알다시피,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분리된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하여 최고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And because God knows everything – He knows your thoughts – he knows your potential to hate and even kil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생각을 아시며 당신이 미워하고 심지어 살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And conversely He knows how the hated feels.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도 아십니다.

He knows the hurt you have inflicted on your victim because he cares for the victim.

하나님은 피해 당하는 자를 돌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미움으로 인해 그 사람이 받는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And something to consider:

그리고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From God's perspective, you don't have to kill someone physically to kill someone.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꼭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We can kill with just our words.

우리는 그저 말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How many times have we killed others by our hurtful words?

우리는 몇 번이나 상처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Ask them how they felt when you spew sharp, bitter words on them.

당신이 날카롭고 쓰디쓴 말을 쏟아부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I'm sure your victims would say,

"I felt like I was dying inside."

당신의 말로 상처 받은 피해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내 속에서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Or perhaps you spoke behind your victims' back?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뒤에서 나쁜 말을 했나요?

Maybe you spread rumors?

어쩌면 당신은 소문을 퍼뜨렸을지 모릅니다.

Maybe you typed in something bad about your victim on social media for everyone to see, never to be erased.

어쩌면 당신은 삭제되지 않는 기록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소셜 미디어에 어떤 사람에 대한 험담을 올렸을지 모릅니다.

Have you ever considered how much you hurt that person?

당신은 그 사람이 그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 받았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Their reputation ruined because of your words.

당신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의 평판이 손상됩니다.

Recently a friend of mine told me how her boss was going bankrupt because the other employees were shrewdly taking advantage of the boss's niceness.

최근에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그 사장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바람에 사장이 파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During the last month of his business, the employees began spreading vile rumors about him and his business.

회사가 문닫기 전 달에 직원들은 사장과 회사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When the boss found out about these rumors, he almost had a mental breakdown.

그 사장은 소문이 떠도는 걸 알고 나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He cried out,

“Are my employees -- with their words -- trying to kill me?”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내 직원들이 말로써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These employees were actually clueless to the murderous effects their words had on their boss.

직원들은 사실 자신의 말이 그 사장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They were blinded of their sinfulness.

그들은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My eyes were first opened to the degree of my sinfulness, when I became a Calvinist.

제가 칼빈주의자가 되었을 때, 저의 눈이 뜨여져 저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I began to realize how sinful I was when I began to use the 10 commandments (the Law) properly for the first time to convict me of my sin.

저는 저의 죄를 판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십계명(율법)을 제대로 적용했는데, 그 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I then acknowledged my total depravity and I repented in remorse.

그리고 나서 저의 전적 타락을 인식했고, 한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I asked God for forgiveness and thanked Jesus for His sacrifice for my sins.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나의 죄를 위해 희생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And then the Gospel became so precious to me and I became grateful for His salvation.

그러자 복음이 제게 너무도 귀한 것이 되었고, 저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But before I became a Calvinist, I couldn't fully understand God's high standard for holiness.

하지만 칼빈주의자가 되기 전만 해도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한 높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I completely ignored God's standards and imposed my own standards of God's laws – ones I could keep.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나 자신의 기준을 억지로 적용하여,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대했습니다.

So these personal standards actually turned me into a self-righteous Christian.

이렇게 개인적인 기준을 적용한 탓에 한 개인적인 기준 탓에 저는 자기 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I convinced myself that I was good.

저는 스스로 선한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What about those people around me who didn't meet my standards? Well, ... they're obviously bad.

그럼 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음, 그들은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죠.

And of course, if I'm good, good things should happen to good people like me – right?

물론 내가 선하다면 나처럼 선한 자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Well, ... as I told you last week,  
instead of good, lots of bad things happened to me.

글쎄요, 지난 주 얘기했듯이 저한테  
좋은 일 대신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And I couldn't understand why God would allow bad  
things to happen to good people.

저는 왜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Just for the sake of those who were not here last week,  
Let me share the long, dark period of repeated  
tragedies I had to undergo.

지난 주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겪은 거듭된 비극으로 점철된 기나긴 어둠의 시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As I shared in last week's sermon,  
when I was 16 years old, I lost my dad to liver cancer;  
지난 주 설교에서 나는 것처럼 제가 16 세 때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 years later, when I was 19, my younger sister died  
trying to rescue a drowning friend;

3 년 후 19 세 때는 여동생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when I was 23, I was diagnosed with the same liver  
disease my dad died of;

23 세 되던 해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그 간질환 진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and when I was 26, I suffered from bronchitis.

26 세 때 저는 기관지염을 앓았습니다.

During that time, I stayed mostly in bed.

그 당시 저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I became depressed and I didn't know what to do.

우울감에 빠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All I could do was pray and cry out to God,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Why?" "Why am I suffering God?" "Please do something!" "Please answer my prayers!"

"왜 이런가요?" "왜 제가 고통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 해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But God remained silent; He didn't do anything I asked for.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구한 것은 아무 것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And to make my suffering worse, nobody knew the pain I was going through because I held it all inside.

제가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모든 고통을 제 안으로 삭였기 때문에 제 고통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One thing I realized is that when people go through times of great suffering, of tremendous depression, people become more poetic, more symbolic in expressing themselves.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큰 고난, 깊은 우울감을 겪다보면 스스로에 대해 좀더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And that's what happened to me: my pain was expressed – in my mind – symbolically like in a vivid dream or a dramatic scene from a movie.

그 현상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생각 속에서 제 고통이 표현되었는데, 생생한 꿈처럼 또는 영화의 극적인 장면처럼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See if you can catch the symbolism in this scene:

이 장면에 나오는 상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Picture me outside my church in Vancouver.

밴쿠버 교회 밖에 있는 제 모습을 그려보세요.

My church is on a grassy hill and I'm at the top of the hill.

저의 교회는 푸른 언덕에 있고 저는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And it's dark, I can barely see anything.

어둠이 깔려서 주변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And I'm lying on the ground on the grassy area next to my church.

저는 교회 옆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A gang of bad people surround me and attack me.

나쁜 사람들 한 무리가 저를 에워싸고 공격합니다.

They punch and kick me with all their might.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주먹으로 저를 치고 발로 저를 찓습니다.

They strike me hard with sticks.

그들은 막대기로 저를 거세게 내리칩니다.

They beat the living daylights out of me.

그들은 저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I try to cover myself, protect myself so I curl up like a ball.

But I'm helpless.

저는 몸을 가리려 하고 둥글게 웅크려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I can barely breathe, but the beating doesn't stop.

저는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From the corner of my eye, I barely make out a shadowy figure in the background.

결눈질로 보니, 뒤쪽에 누군가 어슴프레 서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He is standing just a few feet away, observing all that is happening to me.

그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저한테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And I feel as if this person has the power to stop these bad people from hurting me, so I scream, "Help me, help me!"

저는 이 인물이 나쁜 사람들이 나를 못 때리게 막을 힘이 있다고 느껴져서 고함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but this person does nothing.

He just stands there looking at me.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것도 안해줍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나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Then I realize who this person is.

그러자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Symbolically – in my mind's eye – this shadowy figure represents God.

상징적으로 제 생각의 눈에 비친 이 어슴프레 보이는 인물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Now I'm confused. I'm disappointed. I feel almost betrayed.

이제 저는 혼란에 빠집니다. 실망스럽고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Why won't you help me?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God, You are the Almighty, Sovereign God.

하나님, 주님은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You're supposed to be loving, gracious, and merciful!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Why would you turn your back and let evil continue?

왜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악이 계속되도록 놔두십니까?

The prophet Habakkuk cries out similar words,  
선지자 하박국이 비슷한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How long,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Why do you  
tolerate wrongdoing?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 and justice never prevails.

The wicked hem in the righteous,

so that justice is perverted. Habakkuk 1:2-4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어찌하여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1:2-4

During my time of great hardship, admittedly, I repeatedly complained and grumbled against God.  
인정하건대, 이 깊은 고난의 시기에 저는 되풀이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But what stopped my complaint – what shut me up -- was another dark, dramatic scene that entered my mind's eye.

하지만 저의 불평을 잠재우고, 입을 다물게 한 것은 제 생각에 비친 또 다른 어둡고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It was a scene that took place on top of another hill.  
그것은 다른 언덕 꼭대기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The scene is familiar – it is of the beating of an innocent man.

이 장면은 낯이 익은데, 한 무죄한 분이 매질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He is brutally beaten by a gang of robust Roman soldiers.

그분은 혈기왕성한 한 무리의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His body is covered in bruises from the beating. 온몸은 매맞은 상처로 멍 투성이입니다.

The man is then stripped naked.

그 다음 옷이 벗기워 벌거벗은 몸이 됩니다.

And then Roman guards viciously flog His body, ripping flesh from His body.

로마 군인들은 사악하게 그분의 몸에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하여 몸에서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The guards kneel before Him in mockery, they deride him: "Hail!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군인들은 조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모욕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여! 유대인의 왕이여!"

To add insult to injury, a crown of sharp thorns is gored into His head.

상처뿐 아니라 모욕까지 더해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 그분의 머리에 짓이기며 씌워집니다.

Large drops of blood fall from His forehead stinging His eyes.

그 이마에서 굵은 핏방울이 떨어져 눈으로 흘러들어 눈이 쓰라립니다.



They then spit on His face and punch his face.

그들은 그러고 나서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They force him to carry a heavy rugged cross on his torn back up to a hill.

그들은 억지로 그에게 무겁고 거친 십자가를 지워 상처로 벌어진 등에 지고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Spikes are driven into his wrists and his ankles.

그분의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힙니다.

He is hanged on a cross, reduced to nothing more than a weak, pitiful, unrecognizable body.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연약하고 가련하고 그 몸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상한 모습입니다.

He cries aloud,

"Eli, Eli Lama Sabbachtani!"

그는 소리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s** th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A thousand times more so than I had in my suffering,

Jesus felt the neglect and abandonment of God

예수님은, 제가 겪은 고통보다 천 배나 더 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버림 받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Christ died for the ungodly. ...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Sinc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from God's wrath through Him [Jesus]! **Romans 5: 6-10**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예수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6-10**

You see 2000 years ago, both Jews and Gentiles – nailed Christ to a cross to suffer and die.

2 천 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고통 받고 죽도록 한 것입니다.

But those same people who partook in crucifying Jesus, a few weeks later, in Acts 2 heard the Gospel preached by Peter.

하지만 그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몇 주 후 사도행전 2 장에서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And 3000 of them -- as they realized what they had done to their Messiah -- their hearts were pierced and they repented and came to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이들 중 3 천 명은 메시아에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마음이 찢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A few years later, Saul -- on the road to Damascus ready to kill Christians -- his heart too was pierced as he discovered that he was persecuting Jesus.

몇 년 후 사울은 -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마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이 찢림을 받았습니다.

In our movie, there is one more character that was not yet mentioned.

이 영화에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인물이 남아 있습니다.

He is our protagonist, Edward Dakota, played by the famous actor John Cusak.

그는 우리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다코타인데, 유명한 배우 존 쿠삭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Among the 10 characters, he appears to be the most sensible, reasonable character.

10 명의 인물 중 그는 가장 지각 있고 이성적인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He is also a former police officer, fit to be the hero of our story.

그는 전직 경찰관이고 이 이야기에서 영웅이 되기에 알맞은 사람입니다.

But in one scene, as he desperately tries to solve the crime, he -- out of nowhere -- hears strange voices in his head.

하지만 한 장면에서 그는 범죄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Who am I speaking to?"

"Who am I speaking to?"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지?"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지?"

In a dramatic turn of events, Edward Dakota, out of the blue, finds himself in an office in front of a criminal psychologist.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서, 에드워드 다코타는 갑자기 자신이 범죄심리학자의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He asks the psychologist "Doctor, did I black out again?"

그가 심리학자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제가 또 정신을 잃었나요?"

The psychologist shows him a picture:

그 심리학자는 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This is the serial killer Malcolm Rivers, he is a psychotic patient with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10 personalities).

"이 사람은 연쇄살인마 말콤 리버스인데, 그는 다중인격장애 (10 명의 인격)을 갖고 있는 정신과 환자입니다.

He was convicted of viciously murdering 6 people.

그는 6 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o you know this man in the picture?"

"사진 속 이 남자를 알아요?"

Edward replies, "I don't know who he is."

에드워드는 답합니다. "이 남자 누군지 몰라요."

The psychologist explains,

"You are Malcolm Rivers! You are the murderer."

심리학자가 설명합니다.

"당신이 말콤 리버스예요! 당신이 살인범입니다."

Edward gives the psychologist an incredulous look.

에드워드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심리학자를 바라봅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a former police officer. I'm a law-abiding citizen."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직 경찰관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에요."

The psychologist hands Edward a mirror.  
심리학자는 에드워드에게 거울을 건넵니다.

Edward looks into the mirror.  
에드워드는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He drops the mirror in shock.  
그는 충격에 빠져 거울을 떨어뜨립니다.  
The mirror shatters all over the floor.  
거울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Edward cries out, "What did you do to my face?  
Where's my face?"  
에드워드는 부르짖습니다. "당신, 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얼굴 어디 있어요?"

And then Edward realizes he is handcuffed to his chair.  
그리고 에드워드는 자신이 수갑에 채워져 의자에 고정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Why am I chained up like this?"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나요?”

The psychologist reveals all his evil acts and finally after all truth is revealed, Edward is pierced to the heart.

심리학자는 그의 악한 행동을 모두 보여주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에드워드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back when I was going through my long period of hardship and suffering, much like Edward

Dakota I too had a stunning eye-opening experience.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고난과 고통의 긴 시간을 지날 때 에드워드 다코타처럼 저도 진실에 눈이 뜨이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As I looked into the mirror of the 10 commandments, I took a good look at myself and realized that I was a liar, a thief, an adulterer, and even a murderer.

십계명의 거울에 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스스로를 잘 보게 되었고 제가 거짓말쟁이, 도둑, 간음자,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임을 깨달았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 saw my true colors and then I realized my original interpretation of the symbols in my vision of me on the hill was wrong.

저는 처음으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환상 속에 본 언덕 위 제 모습에 나타난 상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Just like the movie Identity, the characters were reversed.

영화 '아이덴티티'처럼, 그 인물들은 정반대였습니다.

You see, the man being beaten by a gang of men at the top of the hill was actually not me, but it was Jesus being beaten.

언덕 꼭대기에서 한 무리의 사람에게 매 맞던 남자는 사실 제가 아니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He was the innocent man who could not understand why God was just standing there – not helping him.

그분은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 서서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so Jesus, feeling abandoned, cried out,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 받았다고 느끼며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And then I realized that the gang of men who were viciously out of anger and hatred punching and kicking Jesus on the ground was actually -- me.



그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사악하게 땅바닥에 쓰러진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던 한 무리의 남자가 사실은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You see, we're are all sinners – enemies of God!

...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Their tongues practice deceit. The poison of vipers is on their lips. Their mouths are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and the way of peace they do not know. Romans 3:10-17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다! ...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로마서 3:10-17

The Bible is talking about us.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And so we – through our sins – tortured and crucified Jesus.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못박았습니다.

But Christ demonstrated His love to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 while we were His enemies – He died for us.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Romans 5:10 states,

For if, while we were God's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Him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how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through His life. Romans 5:10

로마서 5:10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10

Brothers and Sisters, Jesus is no longer suffering on a cross, nor is He in the grave.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고 있지 않고 무덤에 있지도 않습니다.

Three days after His death, He rose from the dead and His tomb is empty.

죽으신 지 3 일 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의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He is alive, and as Romans 5 says, through His life, we shall be saved.

그분은 살아계시며 로마서 5 장 말씀처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Beloved,

Let me conclude with one of my favorite verses, a verse of hope about the Kingdom to come: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그린 구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God's dwelling place is now among the people, and he will dwell with them.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 I am making everything new!" Rev. 21:3-5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3-5

Praise God that Jesus suffered so that we will no longer  
have to suffer!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 He is making everything new!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Praise God for His Kingdom to come!

오실 그의 나라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하나님 아버지,

We know that if we have repented and believe in your  
Son for our salvation,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Thank you!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 받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In your word you say that **the one who does not love remains in death.**

주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Ever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고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But we know what love is:

하지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Jesus laid down His life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and so, out of gratitude, as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may we be willing to lay our lives for others,**

**including our enemies all through the power of your Gospel.**

**Amen**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